

‘남해안선벨트’ 어떻게 개발되나

335km 남해안 일주 철도 전철화

남해안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물류·휴양 허브로 개발되는 등 동·서·남해안권이 초광역적인 미래 국토의 새로운 성장 발전 축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대구에서 개최된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남해안 선벨트’를 비롯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 남북교류 접경 벨트(평화 에코벨트) 등으로 전국을 초광역적 4대 벨트로 구분해 육성키로 했다.

◇남해안 선 벨트 어떻게 개발되나? = 남해안 선 벨트의 4대 주요전략은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지대 조성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남중권의 동서통합 상징지역 개발 등이다. 주요거점을 남동, 남서, 부산으로 나눠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레저선박 등 조선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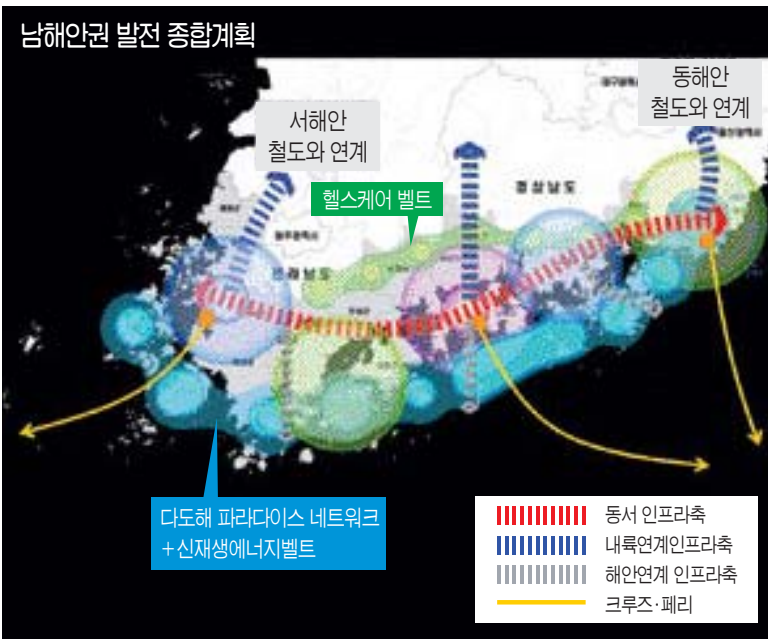
조선·석유화학·항공·항만물류 등 남해안의 국가기간 산업을 고도화해 동북아 국제물류·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해안·도시·습지 등 남해안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 수준의 해양휴양벨트 조성이 핵심이다.

우선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선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항공우주·로봇·핵과학 등 첨단 산업도 남해안권에 유치하기로 했다.

광양·부산항 일대는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이 확충되고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된다. 요

광주~완도·목포~진도 고속도로 건설

전남 26개 사업...27조 재원 마련 과제



트 등 해양 레포츠와 국제 크루즈 기항시설을 갖춰 국제 선사 유치 및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남해안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관광 지역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통합 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산과 창원, 마산, 순천, 목포에 이르는 335km의 남해안 일주 철도를 점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광주~완도 ▲목포~진도 ▲광양~여수 등 4개 구간 221km의 연안~내륙 연계 고속도로도 건설된다. 이럴 경우 남해안이 2시간 대로 통합된다.

◇전남지역 어떤 사업 있나? = 남해안 선 벨트는 글로벌 관광·휴양지

구축, 동북아 국제 교류 거점 조성, 산업간 융·복합화와 연계, 동서 통합과 지역 상생 발전 지대 조성, 국내외 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을 담고 있다.

이중 전남 지역 사업은 영광~부산 기차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과 함평·신안, 진도·해남 등지에는 잘 보존된 갯벌과 습지·강을 활용한 에코센터 건립 등의 생태 관광 벨트 조성사업 등이 있다.

여기에 남서권 조선산업 클러스터,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순천과 보성·목포·고흥·광양만 권에 이르는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해양 바이오 테크노폴리스, 완도 그린 빌리지

◇선벨트 4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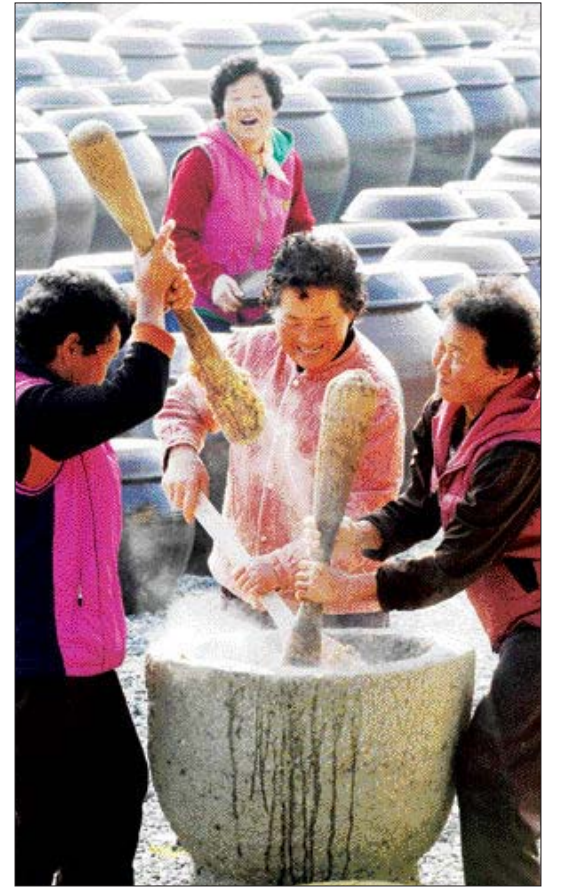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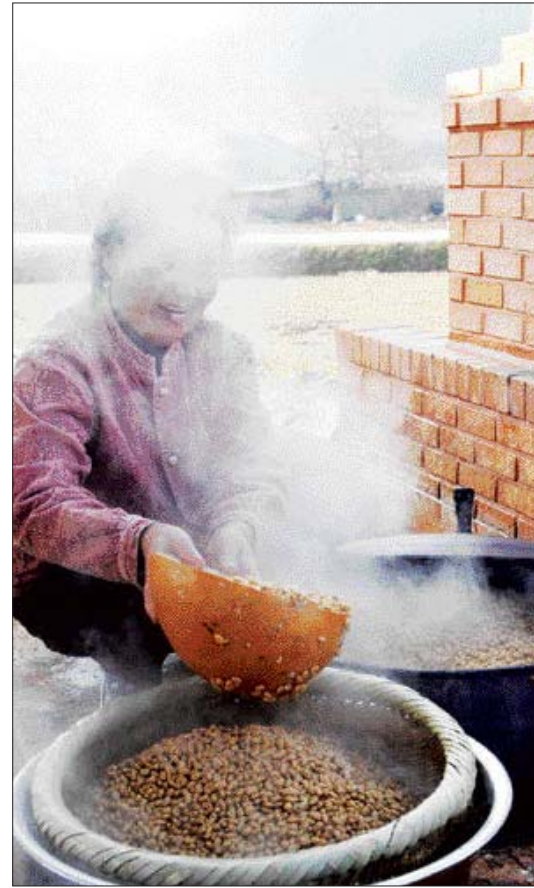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해양관광 휴양지대 조성
-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동서통합 상징지역 개발

조성, 광양 진월면과 경남 하동 금성면 일원의 동서 통합지구 조성 등이 있다.

또 무안공항 항공 물류·수리업과 여수 백야도 외국인 전용 위락지구 조성, 여수박람회 연계·지원 사업, 신안 갤럭시 아일랜드 조성 사업, 여수와 목포항 국제 크루즈항 건설과 배후 도시 재생사업, 요트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안 새천년 대교(암태~압해), 한려대교(여수~남해) 등 섬 구간 15개를 잇는 ‘남해안 오션 브리지’ 사업 계획도 있다.

◇남은 과제 =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엄청난 재원마련이 문제다. 특히 이날 정부가 확정된 남해안 선 벨트 내용은 지난 9월 전남·부산·경남이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중복한 것으로, 3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사업비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은 총 5개 분야 26개 단위사업 71개 사업에 총 27조612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중 국비가 12조7천115억 원, 지방비 6조4천936억 원, 민자는 7조8천561억 원 등이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농한기 농가소득 효자... 강진 된장마을의 메주 만들기

가을걷이가 끝나 농한기에 접어들어 2일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 주민들이 정성들여 메주를 빚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강진전통된장 명농조합은

지난해 된장을 팔아 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콩 삶기, 콩을 으개는 절구질, 메주 만들기.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국토 4개 권역 나눠 새로운 성장 발전 축으로 개발

■초광역 4대 벨트 기본구상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경제권 간 연계, 국경을 초월한 개발 협력을 목표로 국토를 4대 권역으로 나눠 새로운 성장 발전 축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국토를 남해안·동해안·서해안·남북 접경 지역으로 나눠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 구상에 따르면 ‘남해안 선 벨트’를 비롯, 동

해안 지역은 에너지와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녹색성장 전진기지이자 관광의 메카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로 개발한다.

서해안의 경우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로서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거점지역 이자 초일류 첨단 산업의 집결지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남북 접경 지역은 남북 교류 사업과 생태 환경 산업이 중심이 되는 ‘평화에코벨트(남북교류 접경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구역 해제·숙박시설 제한 완화

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2일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지난 7월 발표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경 보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해안 관광투자를 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전남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공원구역 해제와 숙박시설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침체한 지역 투자와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최대 섬 개발사업인 ‘신안 갤럭시 아일랜드’ 사업지구

의 국립공원 구역도 재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내에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인 여수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여수·신안·진도·완도·고흥 5개 시·군으로 면적만 2천321km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은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해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가 부진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도 지연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푸른산 레크리얼

4차 입구 및 용도지역 가능한 최자택형 독립 공간

분양 / 임대

- 170㎡ (27평) 1700만원
- 330㎡ (100평) 3300만원
- 600㎡ (200평) 6000만원
- 1,000㎡ (300평) 10000만원
- 1,300㎡ (400평) 이상 문의

수도권 직통 기차

- 분양가 50%가량 무상 지원 (초·중·고) (이시점부터 1월 15. 2월 15일)

문의: 010-997-7854 (주말, 공휴일)

www.jhhome.com

장수바다장어

100% 자연산

장수바다장어

300㎡ (90평) 3000만원

350㎡ (105평) 3500만원

387-1110